

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	<b>보도자료</b>	http://www.kisti.re.kr
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대전(본원): 대외협력팀 박한철 042 - 869 - 0961 / 강동기 0967 서울(본원): 대외협력팀 이승혜 02 - 3299 - 6185 <b>문의: 최희운 정보서비스센터장(042-869-1870)</b>		
배포번호 : 2014-32	매수 : 보도자료 3매 (이미지 포함)	배포처 : 대외협력팀
배포일자 : 2014.09.03.(수)		

## KISTI, 해외의 국내 학술논문 표절 막는다

- KISTI, 표절감식 세계 최고 기업인 '아이패러다임'과 업무협약 체결 -

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, 원장 박영서)은 9월부터 미국 아이패러다임 (iParadigms)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과학기술 학술정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.
  - 아이패러다임은 세계 최고의 표절감식기술 보유 기업으로, KISTI는 지난 2010년 표절방지시스템인 '크로스체크(CrossCheck)'를 KISTI의 DOI 서비스에 도입한 바 있다. DOI(Digital Object Identifier)는 학술논문 디지털문헌에 부여하는 글로벌 고유식별자로,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. DOI에 표절방지시스템을 적용한 뒤 글로벌 유통을 하면, 해당 논문이 저자도 모르게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.
  -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KISTI는 국내에서 생산된 SCI급 논문을 포함한 약 100만여 건에 달하는 학술논문과 프로시딩\*을 아이패러다임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.(자료 매주 갱신) 이 정보들은 아이패러다임의 글로벌 학술정보 DB에 저장되고, 이를 토대로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(학술지)들에게 활용된다. 아이패러다임은 표절확인을 위한 베이스 DB를 세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.
- \*프로시딩 :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목적으로 만든 학술 연구 논문의 모음집

- 1 -

- 예를 들어, 기존에는 미국 A논문이 아이패러다임을 통해 표절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국내의 학술정보들은 배제됐었다. 그러나 KISTI가 아이패러다임에 학술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제 국내 논문들도 표절검증 베이스 데이터로 활용되며, 만약 A논문이 국내의 학술정보를 표절했다면 이를 밝혀낼 수 있게 됐다.
- 정보제공 이외에도 앞으로 양 기관은 표절방지 시스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, 교육 및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번 정보제공은 KISTI 오픈플랫폼인 NOS(NDSL Open Service, <http://nos.ndsl.kr>)를 통해 추진됐다. NOS는 KISTI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과학기술정보 통합검색서비스인 NDSL(<http://www.ndsl.kr>)의 1억 건이 넘는 방대한 정보들을 NDSL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오픈서비스로 2014년 6월 기준, 총 99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.
- NOS는 정부 3.0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로, 2007년부터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개방돼 삼성전자, 네이버,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(분야)에서 활용되고 있다.
- 최희운 KISTI 정보서비스센터장은 “과학기술 학술정보는 국가의 핵심 자산인데도 지금까지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약했던 게 사실”이라며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내 학술정보가 해외의 표절검증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”되었다고 밝혔다. 또한 “앞으로도 국내 학술정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(끝)

- 2 -

